75 과도 굴신된 작업자세에서 반복적 손상에 의해 발생한 척수내혈종

성별	남	나이	61세	직종	조경공	직업관련성	있음

1 개 요

정○○(남, 61세)은 1989년 3월부터 조경업무를 하던 중 2001년 8월 11일 왼쪽 팔이 저린 증상이 발생한 후 제3~7 경추부에 걸친 척수내 혈종으로 진단받았다.

2 직업력 및 작업환경

주요 작업은 나무심기, 고사목 제거, 자연석 운반 및 쌓기 등인데 전체 작업 중 20% 정도는 나무나 자연석이 너무 무거워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대여하여 작업하였고, 나머지 80% 정도 작업은 근로자들이 직접 하였다. 하루 평균 10명의 근로자가 약 200 그루의 중간 크기 나무를 심었다. 식재할 나무는 뿌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있는 가지의 3분의 1 정도를 낫이나 톱으로 자르고 트럭으로 운반한 다음, 2인 1조로 어깨에 걸은 대나무에 밧줄을 매서 나무를 운반하는 '목도' 방식으로 트럭에서 나무를 내려 구덩이까지 운반하는데 2명이 운반하는 나무의 무게는 대략 100~150kg 정도였다. 건강보험 현물급여내역상 1999년 1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, 2000년 2월 경추부 염좌 및 긴장, 2000년 4월 무릎 측부인대 손상, 2000년 7월 흉추골 골절, 2000년 8월 경추부 염좌 등 작업하다가 발생한 손상으로 근로자 스스로 요양하였다. 2000년 7월의 흉추골 골절은 나무를 심다가 포크레인 삽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는데, 3~4일 쉬면서 동네의 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다시 근무하였고 별다른 후유증은 없었다고 한다. 2001년 8월 7일에는 항공대에서 식재작업 중

소나무 지지목을 매고 가다가 소나무 옹이에 등을 세게 부딪쳐 넘어진 적이 있다고 하였다.

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

근로자 정○○은 약물 복용력,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한 적이 없으며 과거 건강진단에서 결핵, 당뇨, 고혈압 등 질환이 없었다. 20대부터 하루 반 갑 정도 흡연하였고,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.

4 고 찰

외상성 경추부 척수 출혈은 경추부가 과도신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, 경추부가 과도굴신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 정○○의 경우 식재할 나무, 고사목, 자연석의 운반과정에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신에 힘을 주면서 경추부를 심하게 앞으로 구부리는 작업자세를 취하게 되며, 12년 간 반복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지속적으로 과도굴신된 작업자세에 의해 경추부(목)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되었다.

5 결 론

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정○○의 척수 내 혈종(경추부)은 최근 12년 간의 중량물 취급작업(경추부가 과도굴신된 자세로 반복하여 목 부위에 물리적 충격(손상)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)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.